



한국도서관협회 이현주 부장

“도서관은 책이 사는 집입니다”

얼마 전부터 모 방송에서는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프로를 선보이고 있다. 도서관 짓는 캠페인을 벌여야 하는 나라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책에 대한 관심이 이제 책이 사는 집, 도서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라고 여기기에는 한편으론 안타깝고, 한편으론 다행한 일이다. 실제로 우리의 도서관문화는 어떤가. 도서관이란 우리에게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취업이나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곳쯤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공공도서관이 수만 개에 육박하는 서구 현실과 비교할 때 불과 400여 개에 불과한 우리 도서관의 양적인 열세

는 이렇게, 서글플 만큼 크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단체가 한국도서관협회다. 1945년도에 창립, 60년 가까운 역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현주 총무부장(47)을 만나 도서관의 어제 오늘 내일을 들어봤다.

“협회가 처음 결성된 것이 광복된 해 8월 30일입니다. 다들 놀라시는데, 불과 보름 만이었죠. 국립중앙도서관 부관장으로 계시던 박봉석 선생이 당시로선 개인 분이셨던지 도서관협회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결성을 서두르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선도서관협회로 지금의 한국도서관협회 전신입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전국의 도서관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1,500여 명에 이르는 사서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책 읽는 문화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큰 틀을 짜고 각 도서관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집엔 사람이 살아야 하듯이 도서관에도 사람이 살아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반 사람들에게 도서관 문턱은 너무 높다.

“오래 전부터 책이란 특권계층만이 접해야 한다는 관념이 남아 있어서인지 아직도 거리를 가지고 있는 듯해요. 외국에도 비슷한 역사가 있지만 근대화를 거쳐서 많이 의식화가 되었죠.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습니다. 생활의 일부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대화의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연성화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현주 부장은 사람과 도서관 사이의 거리감을 정치적·문화적 요인에서도 찾는다. 아무튼, 문맹도 없는 나라에서 성인의 독서량이 한 달에 채 2권을 넘기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이 아이러니를 깨기 위해서는 독자의 집 반경 4킬로미터 이내엔 반드시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산보하듯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 전철 타고 또 버스로 갈아타야 겨우 갈 수 있는 도서관은 오히려 사람들의 접근 자체를 막는다는 생각이다.

이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협회는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주는 행사를 자주, 꾸준히 벌이는 편이다. 도서관주간 행사와 전국도서관대회, 가족독서 캠페인 등이 그런 콘텐츠에 속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홍보이다.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하는 자체홍보 외에도 각 도서관에 맞는 적당한 홍보전략들을 조언해 주기도 하죠.”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파급력 있는 홍보수단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오락위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느낌표에서

‘기적의 도서관’을 기획하면서 저희 측에 공식적으로 자문을 요청했어요. 전문적인 방향제시를 저희가 맡았으니 프로그램이 가볍지 않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도서관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다. 바로 2006년도에 열리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대회(FLA)이다. 일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적인 도서관 대회이다. 이 대회야말로 도서관이 국민들 속에 파고들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생각에 협회는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은 도서관계 내부에도 있었다. 때문에 도서관법을 바꾸면서 가장 비중을 두었던 것이 인사였다. 변화에 반발이 있었지만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출신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법이 통과되기 전엔 4명에 불과했던 사서출신 관장이 지금은 200명이 넘는다. 최소한의 직업적인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관장으로 일을 주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 입관료를 받는 도서관이 사라진 게 그리 먼 얘기가 아니다.

“도서관이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개념으로 만든 것인데 거기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인식부족으로 예전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책이 사는 집이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책과 도서관의 바람직한 관계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3,000군데가 넘는다. 책이 나오면 최소한 보통 복권(2권) 이상을 산다. 6,000원은 기본으로 도서관에서 구매하는 셈이다. 때문에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 설정이 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 출판계는 도서관을 큰 독자층으로 보지 않고 있다. 도서관이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입찰이나 덤핑으로 도서선정 목록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책을 정가에 산다면 가격 때문에 책을 선별하여 구입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도서관계나 출판계 모두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 출판계에서도 도서관이 불황이 없고 늘 꾸준히 구매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도서관측도 국가사업 기관으로서 정가에 책을 사려는 기본원칙을 고수했으면 합니다.”

이현주 부장은 서울시 이동도서관 사서로 1981년도에 도서관계에 입문한 후 23년을 훌쩍 보냈다. 격동의 세월을 책과 함께 한 것이다. 이제 책을 읽자는 분위기가 서서히 자리잡고 있지만 워낙 척박한 현실이다 보니 기반 자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다. 그가 사서로서 도서관 관계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명분을 찾기 힘들다는 것.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다, 나라를 위한 일이다, 생각하고 일을 하니까 어려움이 없었어요. 기반이 튼튼해서 할 일이 없어진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게 오히려 보람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본 적이 언제였을까. 영어, 상식 책을 들고 열람실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옆 자료실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물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토의 책에 파묻은 고개를 들고 장서가 꽂힌 자료실로 가보자. 책 속에 더 많은 세상이 보일 것이다. 도서관은 그 길로 가는 문이 될 것이다. **한문**

취재 강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